

## 한국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박길상  
상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E-mail: kpark@edunet4u.net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여 종합평가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로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이론적으로 해석해 본다. 셋째로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토대로 투자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섯째로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방향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미주 및 동남아에 투자한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문헌 및 심층적인 면담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해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하고도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아시아와 중남미에 편중되어 있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다변화를 통한 투자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로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결정의 현지화를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 넷째로 바람직한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이 요망된다. 다섯째로 현지의 저임금 확보나 수입규제 회피와 같은 소극적인 투자동기에서 이제는 현지시장 진출이나 고도의 기술획득 등을 위한 공격적이고도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 I.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역경제의 블록화, WTO체제에 따른 개방화 및 국제화 등이 확대되면서 자연 국가간 산업활동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경제협력의 수단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을 위한 소규모 투자에

서 출발하여 1980년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의 생산여건 악화과 관련하여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섬유산업의 경우 세계 섬유기업들은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등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을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맞춰 여러 나라 중 최적의 입지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섬유기업들은 세계 교역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투자초기의 저렴한 노동인력 확보나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동기에서 최근에는 대규모 국제섬유기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한국의 해외투자 산업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 현황, 특징,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섬유산업의 바람직한 해외투자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은 1997년말 현재 해외에 투자한 1,293개 중 규모가 큰 주요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 및 사례분석에 의해 연구하였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해외투자 담당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미주의 경우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경영활동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그 밖의 투자지역은 한국은행, 섬유산업연합회 등의 자료를 통하여 조사하였다.<sup>1)</sup>

본 연구의 구성은 첫째로 지금까지 밝혀진 개도국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이론들을 요약 정리해 보고, 둘째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현지환경 그리고 투자동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셋째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한 후, 넷째로 향후 해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일의 종합적 이론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각국의 투자현상에 따라 선진국형 해외직접투자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 보거나, 수정 또는 보완에 의한 설명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이론모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이론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기존의 실증연구와 함께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을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설명해보려는 관점으로 더닝(J. H. Dunning)과 웰스(L. T. Wells)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둘째로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이론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고지마(K. Kojima)와 오자와(T. Ozawa)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셋째로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을 수정하여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설명해보려는 관점으로 기디(I. H. Giddy)와 영(S. Young)의 연구, 버논(R.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을 기초로한 레크로(D.

1) 본 연구는 계량적인 분석방법보다는 국내 투자담당자 및 현지 경영관리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조사와 아울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통계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는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하였다.

J. Lecraw)와 아카마쓰(K. Akamatsu)의 연구를 들 수 있다.

### 1. 더닝(J. H. Dunning)의 연구

더닝(J. H. Dunning)은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그의 절충이론(eclectic theory)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즉 특정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향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적 우위요소(owner specific advantages), 내부화 우위요소(internalization advantages), 생산 입지상의 우위요소(locational advantages)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그에 의하면 기업특유의 요소인 독점적 우위는 해외직접투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이나 라이선싱에 의해 초과이윤을 획득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려면 독점적 우위 이외에도 내부화의 우위와 피투자국 특유의 우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를 라이선싱에 의해 외부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내부화하는 것이 유리할 때 기업은 라이선싱을 버리고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를 택하게 될 것이며 자본·기술 등을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의 생산요소와 결합하는 것이 국내생산보다 유리할 때, 즉 현지특유의

우위가 있을 때 기업은 수출대신 해외직접투자를 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몇 가지 결점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 국제경쟁학적 분석의 전형인 부분분석 이론이라는 점, 둘째 독과점적인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여러 행위를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셋째 독점적 우위론과 내부화 이론에 입지특유의 우위만을 추가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점, 넷째 기업의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해외직접투자를 바라본 점을 들 수 있다.

더닝(J. H. Dunning)은 또한 한 나라의 경제성장단계의 특성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연결시킴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 모두를 경제성장에 따른 동태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sup>3)</sup> 그는 1인당 GNP수준이 다른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횡단면적(cross sectional)으로 분석하여 유출FDI와 유입FDI의 차이를 나타내는 순유출 FDI(net outward FDI)의 흐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에는 주로 1인당 GNP가 400불 미만의 저개발국가들이 속하는데 이때에는 유출FDI도 유입FDI도 거의 없는 상태다. 2단계에는 1인당 GNP수준이 400불에서 1,500불에 이르는 국가들이 속하는데 이 때에는 국내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수입대체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유입 FDI가 늘어난다. 3단계에는 1인당 GNP수

2) J.H.Dunning,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1980), pp.10-12.

3) J.H.Dunning, "Explaining Outward Direct Inve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K.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pp.1-22.

준이 2,000불에서 4,750불에 이르는 국가들이 속하는데 이때에는 국내기업들도 자체의 독점적 우위를 개발하여 유출FDI를 점차 행하기 시작한다. 4단계에는 1인당 GNP수준이 4,750불 이상의 국가들이 속하는데 이때에는 순수출 해외직접투자자(net outward investor)단계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더닝(J. H. Dunning)의 투자발전단계설(investment development cycle theory)에 의하면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경제발전의 제2단계에서 제3단계로 넘어가면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즉 3단계에서 현지기업의 경쟁은 점차 증가하고 외국회사가 지닌 기업특유의 우위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이 시점에서 현지국은 소위 국제투자분업(international investment specialization)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즉 그 국가가 입지적으로는 비교우위에 있으나 기업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부문에 대하여 외국투자의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자국의 기업이 비교우위에 있으나 입지적 비교열위에 처한 경우 그 기업의 대외투자는 촉진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이론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 선진국 다국적기업

의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개도국의 그것과 동일시한 점이다. 즉 개도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필요한 기업특유의 우위는 선진국기업의 그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거시적 요소인 입지 및 경제요인에 크게 치중하고 있다. 둘째 그의 경제성장단계는 여러 국가의 1인당 소득수준을 대상으로한 횡단면분석(cross sectional analysis)의 결과이므로 개도국의 경제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발전양태를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그 구분기준 또한 단지 소득뿐이어서 경제구조의 변화를 고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각 발전단계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기업의 경쟁사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더닝(J. H. Dunning)의 이론을 토대로한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①세계적인 해외직접투자의 발전추이를 중심으로 하여 영국, 브라질, 한국 등 각 국가별로 적용한 더닝(J. H. Dunning) 자신의 연구<sup>4)</sup>, ②호텔산업에 적용하여 분석한 더닝(J. H. Dunning)과 맥퀸(M. McQueen)의 연구<sup>5)</sup>, ③동구유럽 및 중남미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더닝(J. H. Dunning)과 코리(P. F.

4) J.H.Dun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1 a), p.24; ———, "Explaining Outward Inve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Support of the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K.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b), pp.1-22; ———, "Explaining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Countri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117 (1981 c), p.45.

5) J.H.Dunning and M.McQueen, "The Eclectic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International Hotel Industry," A.M.Rugman, ed.,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Croom Helm, 1982), pp.79-106.

Cory)의 연구<sup>6)</sup>, ④홍콩기업들의 해외직접 투자는 생산입지상의 요소가 주요 동기가 되었다는 첸(E. K. Y. Chen)의 연구<sup>7)</sup> 등을 들 수 있다.

## 2. 웰스(L. T. Wells)의 연구

웰스(L. T. Wells)는 원래 훔바우어(G. Hufbauer)가 국가간의 기술격차와 노무비용의 격차에 의해 국제무역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이론을 해외직접투자이론으로 확장한 순위이론(pecking order theory)을 제시하였다.<sup>8)</sup>

훔바우어(G. Hufbauer)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한 중진국의 수출제품이 선·후진국 양쪽으로 수출될 수 있는 이유를 후진국에 대해서는 후진국의 모방지체(imitation lag)로 인한 기술격차상의 우위를, 선진국에 대해서는 노무비격차상의 우위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웰스(L. T. Wells)는 이것을 개도국의 후발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각국은 특정제품을 처음으로 생산하게 되는 시기에 따라 순위가 정하여질 수 있으며 현재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 순위에 따라

서 보다 낮은 순위의 국가에 대하여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이 특정제품에 대한 최초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선발개도국이 하순위에 있는 국가들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된다.

이러한 순위이론은 기술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과 생산비용의 차이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우위요소인 기술의 순위가 이동한다고 보고 있으며 웰스(L. T. Wells)는 해외직접투자가 순위에 따라 이동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순위에 따라 생산자가 이동함에 따라 제품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소비자 요구에 제품을 적응시켜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품이 유럽이나 일본에서 생산될 때에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에 제품을 적응시켜야 하므로 이 경우의 제품 및 생산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들은 그들보다 소득수준과 순위가 낮은 국가의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에서의 변화는 생산기술보다는 주로 제품디자인

6) P.F.Cory and J.H.Dunning, "The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MNE Involvement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A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Indiana Univ., March 1981), p.67.

7) E.K.Y.Chen, "Hong Kong Multinationals in Asia: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K.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pp.79-100.

8) L.T.Wells, J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T.Agmon and C.P.Kindleberger, eds., *Multinationals from Small Countries* (Cambridge, MIT Press, 1977), pp.145-147; G.Hufbauer, *Synthetic Materials and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v.Press, 1966), pp.32-33.

면에서 이루어진다.

둘째로 순위가 낮은 국가의 기업들은 미국기업에 비해서 더 낮은 순위의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합작투자를 받아들이는 등 더 호의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 및 일본기업들은 차순위국에의 진출에 있어 미국기업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기업이 단독투자나 다수지분을 주장할 경우에도 유럽이나 일본기업들은 합작투자나 라이선싱 등을 과감히 행함으로써 피투자국의 투자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다.

셋째로 선발개도국은 유럽이나 일본기업들이 주로 제품디자인의 변화를 통해서 다음 순위 국가들에 대한 적응능력을 제고시키는 것과는 달리 주로 생산기술상의 변화를 통하여 다음 순위 국가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고 있다. 즉 개도국기업들은 다른 개도국시장에 보다 적합한 노동집약적 소규모기술(small scale technology)이나 보다 적합한 제품(appropriate product)을 가지고 경쟁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넷째로 개도국기업이 갖는 또 다른 기술적 특성의 하나는 제품생산공정이 신속적이라는 것이다. 선진국기업이 표준화된 생산공정을 통해 단일 또는 몇 종의 제품 생산에만 특화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개도국기업들은 동일한 장비에 간단한 설비를 추가하여 기본제품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제품수요가 소량인 면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

상품시장에서 개도국기업들이 선진국기업들에 비해 높은 시장적응도를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선발 개도국기업들은 낮은 관리비용 등 생산요소 비용상의 우위를 갖고 있으며 또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기계설비보다는 개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기계설비가 현지국의 요소비용 및 시장의 영세성에 보다 적합한 까닭에 이 점에서 또한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상의 순위이론은 동태적인 측면에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어떻게 국가별로 이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으나 순위가 낮은 개도국이 순위가 높은 선진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웰스(L. T. Wells)는 개도국 투자기업이 현지기업이나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우위의 원천은 모국시장의 특수한 성격에 잘 적응한 결과로서 얻어진다고 한다. 개도국의 기업들은 모국시장의 소규모이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성격에 적응하기 위해 노동집약적인 공정과 제품을 개발하고 또한 수입원자재를 국산원자재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역시 후발개도국에서도 비슷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필요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웰스(L. T. Wells)는 개도국 투자기업들이 그들의 현지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라이선싱에 의하지 않고 해외직접투

자를 선택한 이유, 즉 시장내부화의 이유를 다음 3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개도국 투자기업들은 선진국 투자기업에 비하여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그들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현지국의 잠재구매자가 그러한 기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둘째 개도국 투자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상의 우위, 즉 관리자나 기술자의 지식 등은 그 내용을 성문화(codified)시키기 곤란하며, 셋째 국제적 특허권을 얻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 등이다.<sup>9)</sup>

한편 웰스(L. T. Wells)의 이론을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①화이트(E.White)는 남미기업들에 대한 연구에서 해외직접투자 흐름에 대해 웰스(L. T. Wells)가 주장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sup>10)</sup>, ②인도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아그라왈(R. G. Agrawal)의 연구에서도 인도기업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지역에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sup>11)</sup>, ③별다른 연구·개발투자없이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자본기술의 적절한 개

량에 의해 외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한 대만의 두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다룬 텡(W. L. Ting)과 쉬브(C. Schive)의 연구가 있으며<sup>12)</sup>, ④개도국 해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보면 8건 중 7건의 경우가 시설재조달원이 그들의 모국이 아닌 선진국이었다는 나이제리아에 대한 남부디리(C. N. S. Nambudiri)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sup>13)</sup>

### 3. 고지마(K. Kojima)와 오자와(T. Ozawa)의 연구

고지마(K. Kojima)와 오자와(T. Ozawa)는 해외직접투자가 이윤극대화 내지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한 개별기업적 입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투자국과 피투자국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반무역지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아닌 투자국과 피투자국의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4)</sup>

고지마(K. Kojima)는 해외직접투자를

9) L.T.Wells, Jr., "Foreign Investors from the Third World," K. 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pp.30-31.

10) E.White, "The International Projection of Firms from Latin American Countries," K.Kumar and M.G.McLeod, eds., op.cit., pp.155-186.

11) R.G.Agrawal, "Third-World Joint Ventures: Indian Experience," K.Kumar and M.G.McLeod, eds., op.cit., pp.115-132.

12) W.L.Ting and C.Schive, "Direct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from Taiwan," K.Kumar and M.G.McLeod, eds., op.cit., pp.101-114.

13) C.N.S.Nambudiri, Olukunle Lyanda, and D.M.Akinnusi, "Third-World Country Firms in Nigeria," K.Kumar and M.G.McLeod, eds., op. cit., pp.145-154.

이 사례는 L.T.Wells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낳았는데, 이에 대해 L.T.Wells는 특별한 기술상의 우위가 없더라도 개도국투자기업은 비용절감면에서 선진국투자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형과 미국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미국형 해외직접투자는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짐으로써 반무역지향적(anti-trade oriented)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비교우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제수지의 악화, 고용의 감소 등 산업구조를 왜곡시키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일본형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지향적(trade oriented)이기 때문에 일본의 비교우위를 보완시켜주며 현지국의 비교우위요소를 이용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개선시켜 양국간의 교역을 증대시켜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국제분업론에 입각하여 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의 산업이지만 현지국에 이전시킴으로써 비교우위를 높일 수 있는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고지마(K. Kojima)의 이론은 몇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첫째 그의 이론은 정태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양국의 경제발전상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

며 일본이 미국의 산업구조와 유사하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sup>17)</sup> 또한 후생적 측면에서도 고지마(K. Kojima)의 기준은 정태적이라는 점이다.

미국형 해외직접투자, 즉 과점적 첨단 산업에의 투자도 중간재·기계설비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과거의 투자수익을 통해 미국에 대하여 국제수지의 개선 및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형의 해외직접투자는 정태적으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동태적으로는 개도국을 노동집약적 생산활동에만 종사하게 하여 일본의 영구종속적 하청경제구조로 몰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형 해외직접투자란 일본기업의 신흥공업국에 대한 첨단기술이전의 응색함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p>17)</sup>

둘째 기업의 투자결정은 비교이윤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절대적이윤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비교이윤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한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sup>18)</sup>

셋째 그의 이론은 일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민경제적 입장을 반영할 뿐

14) K.Kojima, *Direct Foreign Investment: A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Operations* (London: Croom Helm, 1978 c), pp.9-15; T.Ozawa,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New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Oxford Economic Papers*, Vol.31 (1979 b), pp.72-92.

15) *Ibid.*, pp.83-90.

16) S.Sekiguchi and L.B.Krause,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SEAN by Japanese and the United States," R.Garmant, ed., *ASEAN in a Changing Pacific and World Economy* (Australian National Univ. Press, 1980), p.437.

17) *Ibid.*, p.438.

18) C.H.Lee, "On Japanese Macroeconomic Theorie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uly 1984), p.717.



실제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외투자기업이 현지국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경쟁상의 우위요인들에 대하여는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오자와(T. Ozawa)는 고지마(K. Kojima)의 주장을 확장하면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사양산업 및 성장산업에서 급격히 증가한 기본적 요인을 리카도-히크스의 함정<sup>19)</sup> (the Ricardo-Hicksian trap of industrial stagnation)에서의 탈출로 설명하고 있다.<sup>20)</sup> 일본은 1960년대 중반에 노동력부족, 임금상승, 천연자원부족 및 환경적 제약 등의 장애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체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한 것이 해외직접투자이며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를 더욱 촉진시켰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시장에서의 과점의 부재가 일본기업의 방어적 경쟁의 약화를 초래하여 보다 유리한 생산요소를 지니고 있는 국가에의 투자를 촉진하였다. 즉 일본의 경우 산업이 경쟁적일수록, 기술갭이 작을수록 해외생산의 필요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중소기업의 집단적 직접투자가 나타나 과점이론상의 직접투자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자와(T. Ozawa)이론 역시

정태적분석이라는 점과 후생기준상 고지마(K. Kojima)이론과 똑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sup>21)</sup>

#### 4. 기디(I. H. Giddy)와 영(S. Young)의 연구

기디(I. H. Giddy)와 영(S. Young)은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여 개도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론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특징 중 투자의 원천, 투자규모, 기술수준 등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규모가 작고 기술상의 우위가 크지 않은 기업이라도 유리한 입지특유의 요소가 작용하면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하다고 한다.<sup>22)</sup> 그러나 이들 기업은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가 낮기 때문에 해외현지활동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만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비용절감 방법으로서 다음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현지파트너와 합작투자를 한다. 왜냐 하면 현지 정보수집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구조와 유형

19) D.Ricardo의 정체인론을 일반화하여 J.R.Hicks는 어떠한 산업은 무한히 성장할 수 없으며 반드시 토지·노동 등의 필수 생산요소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 T.Ozawa, *Multinationals Japanese Style: The Political Economy Outward Dependen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89.

21) P.J.Buckley,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Reading versus Japan?"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Dec.1985), pp.112-117.

22) I.H.Giddy and S.Young, "Conventional Theory and Unconventional Multinationals: Do New Form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Require New Theories?" A.M.Rugman, ed.,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Croom Helm, 1982), pp.55-78.

을 잘 알고 있는 동일투자기업이 주요 경쟁자가 될 해외시장에 투자한다. 셋째 하청모기업이 이미 진출하고 있는 등 안정적인 시장이 보장되어 있는 곳에 투자한다. 넷째 조세연기에 따른 조세도피가 가능하거나 이자보상등과 같은 유인을 제공하는 나라에 투자한다. 다섯째 언어나 문화가 투자국과 유사한 국가 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에 투자한다. 여섯째 투자국보다 경제적으로 저개발상태에 있어 현지경쟁의 강도가 낮은 국가에 투자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개도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요인을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내부화의 필요성에 두는 것보다 현지특유의 우위요소에 의하여 해외활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강조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가 부족하고 경영활동의 통합능력이 부족한 개도국기업에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5. 버논(R. Vernon)의 연구

버논(R. Vernon)은 선·후진국간의 기술격차와 제품수명주기 (product life cycle)에 따른 시장전략 변화에 착안하여 각국간 무역패턴과 선진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동태적으로 파악한 제품수명주기이론 (product life cycle theory)을 제시하였는데 이 이론은 허쉬(S. Hirsch), 웰

스(L. T. Wells)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이론은 해외직접투자의 패턴을 설명하는데 있어 제품활동의 함수인 일련의 단계를 제시하며 기술혁신(innovation)을 수출 및 차후 해외직접투자의 토대로서 강조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 시장의 불확실성, 정보비지출의 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의 국제화(international involvement)는 그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수명주기에 의해 신제품단계(new product stage), 성숙제품단계(maturing product stage), 표준화제품단계(standardized product stage)의 세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한다고 보았다.<sup>23)</sup>

결국 버논(R.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설명의 장점은 첫째 무역과 해외투자와의 관계, 둘째 시장확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셋째 일부제조업 부문의 해외에서 현지조립생산, 넷째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있어 수요조건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으로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첫째 동태적인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미국기업의 대유럽 및 일본투자자와 유럽 및 일본기업의 대개도국투자자로서 신기술의 범세계적 확산보다는 해외직접투자가 미국으로 역류하고 또한 선진국간의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둘째 제품수명주기이론은 각단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23) R.Vern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80 (1966), pp.190-207; R.Vernon, *Sovereignty at Bay: The Multinational Spread of U.S. Enterprises* (N.Y.: Basic Books, 1971), p.76.

한편 버논(R. Vernon) 자신도 제품수명주기이론의 이론적 결함에 대해 비판과 함께 수정이론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sup>24)</sup>

즉 제품수명주기이론의 각단계에서 동종기업간의 경쟁으로 인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 또는 미국에서 기타 선진국으로, 기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는 진입장벽(entry barrier)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제품 생산기업은 기술집약성을 지니게 되나 성숙단계에 있는 제품의 생산기업은 제품차별화 생산과 분배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때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개도국투자 또는 경쟁력을 상실한 현지자회사의 감량경영 등을 고려하게 된다.

## 6. 아카마쓰(K. Akamatsu)의 연구

버논(R.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선진국의 신제품개발단계로부터 표준화기에 이르기까지 생산입지의 변동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카마쓰(K. Akamatsu)의 추적제품주기는 선진국의 신제품을 개도국 또는 추적국이 수입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일단 수입이 시작되면 수요를 자극하게 되고 국내수요의 증가는 국내생산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국내생산의 초기단계

에서는 수입대체에 불과하지만 국내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며 또한 생산비제고, 기술향상 그리고 원가절감 등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비용이 국제경쟁수준에 이르게 되면 해외시장도 개척할 수 있게 되어 수입대체산업은 수출산업으로 전환되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국내생산→수출의 연속적인 과정이 마치 기러기가 나는 모양과 흡사하다고 해서 안행형태론(catching-up product cycle theory)이라 부른다.<sup>25)</sup>

이 이론이 버논(R.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과 다른점은 선진국이 아닌 이를 추적하는 개도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는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는 통상 추적속도가 빠른 국가로부터 느린 국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해외직접투자가 양국의 비교우위 패턴에 맞도록 이루어지면 산업구조의 개선은 물론 무역도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이 이론은 개도국의 산업발전과정에 있어 직접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7. 레크로(D. J. Lecraw)의 연구

레크로(D. J. Lecraw)는 버논(R.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을 차용하여

24) R.Vernon, *Storm over the Multinational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pp.50-78.

25) 赤松要, 「金廢化の國際經濟」(東洋經濟新報社, 1974), pp.14-55.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고 있다.<sup>26)</sup> 그는 개도국기업이 기술상 또는 경영관리의 우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외직접투자를 할만한 동기나 경험의 축적도 없으면서 실제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첫째 왜 선발개도국이 후발개도국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가, 둘째 어떻게 개도국기업이 현지에서 선진국기업이나 현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제품수명주기이론을 수정한 수정제품수명주기이론(modified product life cycle theory)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은 표준화의 단계에 따라 생산입지가 선발개도국에서 후발개도국으로 이전된다는 것인데 첫째단계에서 선발개도국기업은 자국시장을 목표로 생산을 한다. 이 단계에서 선발개도국기업은 좁은 국내시장과 낮은 소득수준 때문에 저품질의 소규모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때 선발개도국기업은 정부가 부과하는 높은 수입관세, 수입쿼터 또는 수입금지 등의 보호조치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기업간에는 낮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경영기술이 희소하여 산업의 집중도가 심화될 수도 있다. 만약 집중도가 높다면 상위기업들은 과점적 이익을 얻게되어 해외로 진출할 여력이 생길 수 있으며 산업집중도가 낮아 거의 완전경쟁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호정책에 의해 본국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게되어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도

생길 것이다.

둘째단계에서 선발개도국기업은 본국시장에서의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개도국 혹은 선진국에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때 후발개도국은 선발개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여 오다가 국내경제의 규모나 생산능력이 상승함에 따라 자국내에서 제조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셋째단계에서 후발개도국기업도 선발개도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본국정부의 보호하에 비록 경험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열위에 있지만 기업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수출시장의 손실위험에 접한 선발개도국기업은 수출시장의 유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행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술은 선진국기업과 같은 연구개발 및 마케팅지향적이 아닌 소규모 생산기술이 된다.

이 이론은 해외직접투자의 방향이 선발개도국에서 후발개도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잘 설명해 주지만 후발개도국에서 선발개도국 또는 선진국으로의 상향진출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sup>27)</sup>

한편 레크로(D. J. Lecraw)는 이 이론을 토대로 아세안(ASEAN) 5개국에 투자하고 있는 23개 개도국기업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23개 기업 가운데 19개 기업이 이 이론에 합치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6) D.J.Lecraw,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LDCs: Evidence from the ASEAN Region," K.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pp.37-51.

27) J.H.Dunning은 절충이론(eclectic theory)을 통하여 대선진국으로의 투자이유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또한 그는 태국에 투자하고 있는 20개 개도국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sup>28)</sup> 즉 개도국기업의 진출동기는 기존시장에 대한 공세의 강화라는 점에서 선진국기업과 유사하지만 본국의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생길 수 있는 기업자산의 손실위험의 분산, 현지국의 높은 수익률, 본국시장의 협소, 그리고 현지국에 알맞는 노동집약적 생산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도국기업이 본국에서 생산·판매·수출하는 제품은 통상적으로 성숙기의 표준화상품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저기술·소규모생산의 제품이 많고 가격탄력성이 크다. 그리하여 가격탄력성이 작고 기술집약적 제품을 가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에 비해서 관세·비관세장벽, 현지기업과의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수출환경 조건과 경쟁조건이 악화가 개도국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진출을 한 동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원재료가 부족한 한국 및 대만과 같은 나라의 기업은 원재료의 지속적·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하기도 하며 현지국의 친지나 동료기업가

등 인종적 유대(ethnic ties)를 통하여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저기술·비차별화 제품을 가진 개도국 다국적기업은 합작투자를 취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sup>29)</sup> 즉 개도국기업의 대다수인 86%가 소수주식 소유인 점이다. 개도국기업은 합작에 따른 기술, 노하우의 상실, 품질관리 및 이윤독점력의 저하 등을 그다지 염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산가치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위험분산을 중시하는 개도국기업은 배당 및 자금의 본국송금을 제1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 전망에 서서 현지경영을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완전자회사를 소유한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발생하는 현지측의 반외자정책, 경제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고양과 같은 마찰을 의식적으로 피하려 한다.<sup>30)</sup>

또한 개도국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시장지향성은 약하지만 보다 생산지향적이다.<sup>31)</sup> 즉 그들은 매우 높은 정도로 균일적 품질의 표준화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는 점에서, 또 가격면에서 현지의 요소가격에 적합한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는 점에서 생산지향적이다. 제품의 품질은 현지기업과는 거의 동등하지만 선진국기업에

28) D.J.Lecraw, "Direct Investment by Firms from Less-Developed Countries," *Oxford Economic Papers*, No.3 (1977), p.444.

29) Ibid., p.448.

30) 그러나 해외시장을 보존하려는 수출지향적 투자에 있어서 이 유형으로 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에 있는 홍콩 및 대만기업을 비교할 때 홍콩이 더욱 수출지향적이며 보다 높은 정도의 완전소유 형태를 띠고 있다.

K.Yoshihara, *Foreign Investment and Domestic Response: A Study of Singapore's Industrializations* (Singapore Eastern Univ.Press, 1976), p.141.

31) D.J.Lecraw, op.cit., p.449.

비할 때는 열위에 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할 때 개도국기업은 선진국기업 및 현지기업에 비해서 수입원료의 의존도가 낮다. 그들은 현지의 낮은 품질의 원료 및 중간재를 가공하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개도국기업이 선진국에 비해서 모회사의 통제정도가 낮다는 점은 이미 소유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소위 '현지화'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기업은 선진국기업과 같이 본사의 전세계적 통제망(global control network)의 구축을 강하게 받지 않고 현지 파견간부에 거의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비용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추론 가능하다.<sup>32)</sup>

다음으로 대다수의 개도국기업은 현지의 사정에 적합한 기술도입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및 기계설비의 도입·조달선이 다양한 경향을 띠고 있다. 즉 태국에 있어서의 개도국기업은 노동집약적 기술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에서도 견딜 수 있는 양질·저마진의 표준화상품을 소규모로 생산하여 소규모시장에 충족시키고 있음을 레크로(D. J. Lecraw)는 설명하고 있다.<sup>33)</sup> 이 연구결과는 웰스(L. T. Wells)가 실시한 홍콩계 중국인의 대외투자에 관한 조사결과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sup>34)</sup>

### Ⅲ. 한국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구조분석

#### 1. 연구조사방법론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섬유기업의 바람직한 해외투자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행한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문헌 및 면담조사 하였다. 조사대상 기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말 현재 해외에 투자한 1,293개 기업 중에서 규모가 큰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투자지역은 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한 동남아 26개, 미주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면담조사는 1998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본사와 현지공장에서 실시하였는데,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핵심응답자(key informants)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즉 본사의 경우 부장급 이상 투자담당자와, 현지공장의 경우 최고경영자와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표 1> 면담조사 대상자

구 분		기 업 수
동남아	본 사	26
	현지공장	5
미 주		15
계		46

32) Ibid., p.449.

33) Ibid., p.454.

34) L.T.Wells, Jr., "Foreign Investment from the Third World: The Experience of Chinese Firms from Hong Kong,"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pring 1978), pp.39-49.

<표 2> 면담조사 내용

항 목	조 사 내 용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li> <li>· 설립년도</li> <li>· 종업원수</li> <li>· 투자년도</li> <li>· 투자금액</li> <li>· 생산품목</li> </ul>
투자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의 무역규제</li> <li>· 국내임금의 인상</li> <li>· 현지의 낮은 생산비 이용</li> <li>· 뛰어난 제조기술</li> </ul>
투자상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시장에 대한 지식부족</li> <li>· 의사소통의 어려움</li> <li>· 외환 및 정치적 어려움</li> <li>· 현지인 노무관리상의 어려움</li> <li>· 정부기관 등의 차별대우</li> <li>· 법,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li> <li>· 금융 및 자본시장에의 접근 어려움</li> </ul>

면담조사 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기업의 일반적 특성, ②투자동기, ③투자상의 애로점 등 3개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3절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면담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동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절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 2. 기존의 연구

개도국 해외직접투자에 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순위이론에 비추어 본 실증적 연구로는 쿠마(K. Kumar)와 맥클리오드(M. Mcleod, 1981)가 편집한 책에 주로 집적되어 있는데 ①별다른 연구·개발투자없이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자본기술의 적절한 개량에 의해 외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한 대만의 두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텡(W. L. Ting), 쉬브(C. Schive, 1981)의 연구, ②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지만 나이지리아에 투자한 개도국기업의 8건 중 7건의 경우가 시설재조달원이 그들의 모국이 아닌 선진국이었다는 남부디리(C. N. S. Nambudiri), 리안다(O. Lyanda), 알킨누시(D. M. Alkinnusi, 1981)의 연구, ③인도의 해외합작투자에 있어서 인도출자분이 주로 자본재, 기계, 기초원자재, 기술적 노하우, 경영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되었다는 아그라왈(R. G. Agrawal, 1981)의 연구, ④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같이 시장이 넓고 부유한 국가기업들은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같이 시장이 협소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 투자하였다는 화이트(E. White, 1981)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제품수명주기이론을 기초로 다룬 실증적 연구로는 개도국 투자기업들이 선진국 투자기업의 자회사와 비교해 볼 때 규모 면에서 작고 노동집약적 기술을 사용하며 현지원자재를 더 많이 생산에 투입한다는 레크로(D. J. Lecraw, 1981)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레크로(D. J. Lecraw)는 ASEAN 15개국에 투자하고 있는 23개 개도국기업 중 19개 기업이 이에 합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절충이론의 시각에서 본 실증적 연구로는 ①세계적인 해외직접투자의 발전추이를 중심으로 하여 영국, 브라질, 한국 등 각 국가별로 적용한 더닝(J. H. Dunning, 1981 a,b,c)의 연구, ②호텔산업에 적용하여 분석한 더닝(J. H. Dunning), 맥퀸(M. McQueen, 1982)의 연구, ③동구 유럽 및 중남미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더닝(J. H. Dunning), 코리(P. Cory, 1981)의 연구, ④홍콩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생산입지적 요소가 주요 동기가 되었다는 첸(E. K. Y. Chen, 1981)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과점적 경쟁이론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는 니커박커(K. Knickerbocker, 1973)의 연구, 플라우어스(E. Flowers, 197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편 제3세계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는 웰스(L. Wells), 랄(S. Lall, 1983)의 연구가 있으며 스위스, 스웨덴, 호주, 중남미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로는 니한스(T.

Niehans), 칼슨(S. Carlson), 휴기스(H. Hughes), 디아스 - 알레잔드로(C. Diaz - Alejandro, 1977)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아그몬(T. Agmon)과 킨들버거(C. P. Kindleberger, 1977)가 편집한 책에 집적되어 있다.

다음으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로는 정구현(1980), 조동성(1981), Jo S.H.(1981), 김기영(1983), 어운대(1984), 민상기(1984), K. Kumar와 김기영(1984), Han C. M.과 L. Brewer(1984), Euh Y. D.와 Min S. H. (1986)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한국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적인 특징과 유형, 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소기업의 국제화, 원료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의 컬러 TV산업을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 김완순(1985)의 연구, 한국가전산업의 대미 직접투자에 관한 원종근(1986)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정구현(1980)은 원료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다루었다. 한국의 자원개발투자는 주로 대선진국 에너지자원사업에 치중되어 있는바 이 분야에서는 투자개발보다는 장기공급계약이 더 바람직하며 후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합작투자방식이 유리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합작투자에서는 현지인들의 문화와 사업관습을 익힐 수 있고 현지인을 지휘할 수 있는 경영자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조동성(1981)은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



화문제를 다루었다.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체투자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지경영방침의 부재, 분쟁시 대비조치의 소홀, 투자지원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조사, 진출목적에 따른 세부사항의 충분한 사례조사 등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였다.

Jo S. H.(1981)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원자재확보를 위한 대선진국투자, 둘째 건설수출과 관련된 투자, 셋째 무역회사들의 현지마케팅을 위한 투자, 넷째 개도국들에 대한 제조업투자, 다섯째 대선진국 R&D투자 등이다. 또 중요한 투자동기로는 무역장벽의 극복과 소비시장 접근의 두 가지 요인을 들고 있으며 투자의 주체는 대부분 중규모기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왜냐 하면 중규모기업이 기업의 성격상 대기업보다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기영(1983)은 한국 제조기업이 갖는 경쟁적 우위의 원천을 첫째 한국기업은 현지국들이 필요로 하는 현지사정에 적합한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선진국 다국적기업보다는 개도국 국제기업이 현지국과 친밀하고 거부감을 주지 않는 문화·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셋째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보다 고정비 및 인건비부담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쿠마(K. Kumar)와 김기영(1984)은 1980년까지 발생한 한국기업의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를 다루고 있다. 이들 투

자는 거의가 후발개도국에 대한 것인데 한국기업이 갖는 독점적 우위요소를 첫째 낮은 고정비와 인건비 등 원가면에서의 우위, 둘째 기술과 제품을 현지여건에 적용시킴, 셋째 한국기업의 마케팅능력의 우수함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어윤대(1984)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시장추구형, 생산효율추구형, 원자재추구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한국기업이 갖는 비교우위요소를 여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한국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선진국기업에 비하여 현지적응성이 높다. 둘째 피투자개도국으로서는 한국기업이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보다 훨씬 다루기 쉽고 문화·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낀다. 셋째 한국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저렴한 임금 및 높은 생산성이 노동집약적인 표준화된 기술과 결합하여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누리지 못하는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다. 넷째 선진국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통한 독과점적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반면 한국기업들은 소기업형 해외투자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기업 경영자들의 국제경영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기술개발투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높은 기업가정신 등인데 이 여섯 가지 요인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게되며 특히 세번째와 네번째의 요인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민상기(1984)는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다루고 있다. 한국 해외투자기업이 갖는 경쟁적 우위의 원천은 선진국의 독점적 우위에 비하면 빈약한 것이지만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결합한 후 이를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 적합하도록 소화한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h Y. D.와 Min S. H.(1986)은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도국기업들의 국제경영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한국의 국제기업들은 기업전체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때 모기업의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지만 현지자회사의 부문별운영은 모기업과 자회사 사이의 협의 혹은 현지자회사에게 많은 결정권한을 위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계획은 모기업과 현지자회사의 협의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금융과 인사계획은 현지자회사에 위임 혹은 모기업과 현지자회사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슷한 반면 조직·생산·조달·마케팅계획 등은 대부분 현지자회사에서 자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섬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로는 김영봉(1975,1979)의 연구가 있고, 그 밖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연구원, 한국산업은행 등의 기관이 발행하는 연구조사보고서 및 통계자료가 있을 뿐이다.

### 3.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구조분석

#### 3.1 일반적 특성분석

##### 3.1.1 개황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임금의 인상, 선진국의 무역장벽강화 등에 의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70년대 후반에는 주로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투자지역도 제3국시장 특히 미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중남미국가 중 심을 이루었다. 또한 투자규모도 아주 미약하였으며 투자품목 또한 단순봉제 중심의 초보적 단계에 머무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는 국내임금의 상승 등 국내생산여건의 악화로 인해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세계적인 지역별 경제통합과 해외투자 와 관련된 국내의 여건자유화 등은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에는 전체투자대비 17.7%, 1991년에는 20%, 1993년에는 28%, 그리고 1997년말에는

<표 3>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6년	1997년
총투자(A)	943	1,511	1,876	4,912	6,132	5,654
섬유류투자(B)	167	302	526	1,001	1,262	1,567
비중(B/A)	17.7%	20%	28%	20.4%	20.6%	27.7%

주: 허가기준

자료: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년보, 1997

<표 4> 연도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달러)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아시아	52	52,567	155	178,116	414	378,743	787	660,591	1,063	1,028,131
중동	1	263	1	263	1	263	1	263	3	6,633
유럽	0	0	1	678	3	1,053	12	109,289	21	146,019
북미	14	19,731	22	37,831	12	14,263	47	46,892	68	127,940
중남미	47	41,713	69	73,270	88	91,408	98	133,282	110	166,147
아프리카	1	1,145	1	1,145	1	1,145	4	53,403	6	62,463
대양주	13	8,361	14	8,329	14	12,120	15	11,205	22	28,260
계	128	123,780	263	299,632	533	498,995	964	1,014,925	1,293	1,565,593

주 : 허가기준, 1989년은 신발류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년보, 1997

15억6천7백만달러로 전체 해외투자 대비 27.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에는 국내 섬유산업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해외투자가 크게 둔화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동기도 지금까지의 단순저임금이나 노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서 점차 일괄공정체제를 확립하는 대형투자, 즉 업스트림(upstream)에서 다운스트림(downstream)까지의 동반진출과 해외시장 구축 그리고 거시적 안목에서의 현지화를 통해 국제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미약하지만 변모하고 있다.

### 3.1.2 지역별 특성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연도별 및 지역별로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는 중남미 및 카리브연안국의 진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으로의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도 미국의 신원산지 규정의 실시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대중국투자의 메리트가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으로의 편중투자에서 벗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후발개도국인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구소련의 파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행해지고 있다.

### 3.1.3 규모별 특성

다음으로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금액별로 보면 1996년의 경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투자의 79.2%가 100만달러 이하로 나타났으며 100만달러 이하의 투자는 1991년 이후 매년 70% 이상씩 꾸준한 증가를 보여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의류부분의 소규모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비율은 총투자의 20.8%에 불과하고 투자증가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사, 직물, 염색 등 대규모시설을 요하는 분야의 투자는 상대

<표 5> 연도별, 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수)

	1989년	1991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00만달러 이하	108	173	405	656	771	900
100-200만달러	43	65	94	96	107	113
200-500만달러	11	25	42	52	62	84
500-1,000만달러	1	2	5	6	16	27
1,000만달러 이상	1	2	5	7	10	13
계	164	267	551	817	966	1,137

주 : 허가기준, 1989년은 신발류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연보, 1997

적으로 의류부문에 비해 낮아 일괄공정체제의 해외동반진출이 아직까지는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3.2 투자환경분석

#### 3.2.1 아시아지역

아시아 지역에는 1997년말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등 16개국에 10억2천8백만달러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다. 이들 국가에 투자한 기업들 중 주요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담당자와의 심층 면담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 ① 중국

- 증치세 환급제도의 미시행
- 원부자재 현지조달의 어려움
- 쿼터배정의 어려움
- 지방정부의 각종 세금부과
- 한국기업간의 과당경쟁
- 기계설비에 대한 지나친 관세

- 노동생산성의 저하
- 인력관리의 어려움
- 신제품의 짧은 수명주기
- 투자관련제도의 잦은 변경

##### ② 베트남

- 금융제도의 미비
- 쿼터배정의 어려움
-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지나친 관세
- 수입통관 절차의 복잡성
- 지나친 부대비용
- 공무원의 부정부패
- 노조의 활동이 강함

##### ③ 인도네시아

- 금융조달의 어려움
- 전력, 도로, 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 매년 10% 이상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생산원가상승
- 인허가 및 행정절차의 복잡

- 인력관리의 어려움
- 쿼터배정의 불공정성

##### ④ 방글라데시

- 과도한 금융비용
- 인프라시설의 미비
- 원부자재 확보의 어려움

- 노조의 강한 입김
- ⑤ 스리랑카
  - 인건비 및 노사문제
  - 사회간접자본의 취약
  - 자금조달의 어려움
- ⑥ 필리핀
  - 인건비 및 노무관리의 어려움
  - 행정절차의 복잡
  - 인프라시설의 부족

- 원부자재 조달의 어려움
- ④ 코스타리카
  - 높은 인건비
  - 각종 혜택의 감소
  - 통관 및 세무제도의 미비
- ⑤ 도미니카 공화국
  - 인력수급의 어려움
  - 인프라시설의 미비
  - 대미수출의 어려움
  - 복잡한 통관절차
  - 관련법규의 잦은 변경
  - 외국자본에 대한 불공평
  -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진출로 가격경쟁력 약화

### 3.2.2 미주지역

미주지역에는 1997년말 현재 미국, 파나마, 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 16개국에 1억6천6백만달러로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많이 진출해 있다. 이들 국가에 투자한 기업들 중 주요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국의 경영관리자 및 국내 투자담당자와의 심층 면담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 ① 미국
  -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및 현지적응력 부족
  - 조세관련규정의 잦은 변경
  - 시장수요의 변동 폭이 큼
  - 까다로운 환경규제
- ② 온두라스
  - 인력수급의 어려움
  - 노무자 중심의 노동관련법
  - 불공정 용자제도
- ③ 과테말라
  - 높은 인건비 상승
  - 인프라시설의 미비

### 4.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

심층면담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한국 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동기요인을 살펴보면 ①선진국의 무역장벽 강화, ②국내임금의 인상, ③현지의 낮은 생산비 이용, ④뛰어난 제조기술 등으로 나타났다.

이 동기요인들을 II장에서 제시한 이론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면 위 요인 중 ①은 더닝(J. H. Dunning)과 기디(I. H. Giddy)의 입지이론으로 ②는 고지마(K. Kojima)와 오자와(T. Ozawa)의 거시경제적 접근이론으로 ③은 고지마(K. Kojima)와 오자와(T. Ozawa)의 거시경제적 접근이론 및 기디(I. H. Giddy)와 영(S. Young)의 입지이론으로 ④는 레크로(D. J. Lecraw)의 수정제품수명주기이론 및 웰스(L. T. Wells)의 순위이론으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이들 이론을 토대로 한

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이론(location theory)에 의한 해석이다. 동기요인 중 '선진국의 무역장벽 강화'는 섬유제품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수입규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투자지역이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때 투자지역과 목표시장과는 다르므로 이러한 투자는 수출시장보완형(export market oriented) 투자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지이론에 의한 해석은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내부화의 필요성보다는 입지특유의 요소만 강조하고 있으므로 기업특유의 독점적우위가 부족한 대부분의 한국 해외투자 중소기업에게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순위이론(pecking order theory)에 의한 해석이다.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투자지역은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중남미나 아시아지역이 대부분이므로 제조기술면에서 이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기술변화를 일으킨 부분은 제품의 변화나 장비의 개량보다도 제조공정상의 기술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뛰어난 제조기술이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순위이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공정상의 기술변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순위이론에 의한 해석은 동태적인 측면에서 한국보다 저개발 상태에 있는 중남미, 대양주,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으나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대선진국(미국)으로의 투자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수정제품수명주기이론(modified product life cycle theory)에 의한 해석이다. 동기요인 중 '뛰어난 제조기술'은 순위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뛰어난 제조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선진국의 기술에 비하면 낮은 차원의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중남미, 아시아, 대양주 등의 국가에 알맞은 소규모 생산기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으로의 투자는 저임금에 의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효율지향형(production efficiency oriented) 투자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제품수명주기이론에 의한 해석은 순위이론과 마찬가지로 중남미, 대양주, 아시아지역 국가로의 투자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으나 최근의 대선진국(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거시경제적 접근이론(macroeconomic theory)에 의한 해석이다. 동기요인 중 '국내임금 인상 및 현지의 낮은 생산비 이용'은 국내에서의 비교열위를 만회하기 위해 중남미, 아시아 등 해외에 이전시킴으로써 이들 지역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상호보완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시경제적 접근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비교우위요소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지향형(trade oriented) 투자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적 접근이론에 의한 해석은 정태적 측면에서 국민경제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이 현지

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경쟁상 우위요인들에 대해서는 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태적인 측면에서도 설명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상의 여러 특징과 관련지어 볼 때 앞으로는 새로운 방향에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앞에서 살펴본 제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일의 보편화된 신이론의 개발이 아쉽다고 하겠다.

#### IV. 한국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및 문제점

##### 1. 투자성과

사례분석 및 심층면담조사 결과 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은 투자초기에 기계, 설비 등을 주로 모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투자목적이 시장개척보다는 생산거점확보형 투자인 경우 모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높게 나타나 무역수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심층면담조사에 응한 해외투자기업의 역수입량을 계산한 결과 해외로부터 생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물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국산 원·부자재 수출액에서 국내 역수입량을 뺀 무역수지가 흑자로 추정되고 있어 현재까지 해외투자는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과 같은 특정국가의 편중투자에서 점차 벗어나 여러 국가에 걸친 다양한 투자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방향도 일부업종에 대한 단순투자보다는 일괄공정의 내수진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지역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등은 한국과 지리적 및 정서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면담결과 투자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1992년 수교이후 많은 투자기업들이 집중되어 과당경쟁 및 인력스카웃, 임금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 개선책이 요구된다.

한편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면서 국내 섬유산업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면담결과 확인되었다. 물론 해외투자의 진행으로 국내설비의 해외투자지역으로의 이전과 해체가 전개되고 있고 후발 개도국들에 의해 시장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순히 이런 점만으로 해외투자가 섬유산업의 공동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면담에 응한 대다수기업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근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섬유산업의 공동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산업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화 대책으로는 매우 고도화되고 코스트 경쟁력이 높은 소재, 상품의 적지생산, 적지조달에 따라 국제적 분업을 도모하며 산업으로서 전체적인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 문제점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의 낙후성, 투자전략에 대한 미성숙성, 정부의 투자정책에 대한 미비성 등 많은 문제점이 면담조사 및 사례분석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투자지역에 대한 정보미흡 및 투자전략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성공적인 해외투자를 위해서 현지국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정보입수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는 정부 및 공공지원체제와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집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 산업별 등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외직접투자는 현지의 투자환경 분석을 기초로 마케팅, 재무, 인사, 생산 등 다양한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례로 중국의 경우 정부의 빈번한 정책변경, 내수시장의 상황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 투자지역의 편중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과거 중남미에서 최근에는 동남아에 편중되어 있어 값싼 노동력의 이용이나 쿼터규제 회피와 같은 투자 초기에 누려온 입지적 우위요소(locational advantage)의 메리트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당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투자지역을 다양화시켜 투자지역 편중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현지국 시장진출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가 주로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나 수입규제 회피를 통한 시장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적극적인 현지시장 진출이나 고도의 기술획득 등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투자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 섬유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투자기업들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하던 같은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국내생산을 아예 포기하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국내 섬유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산업발전 단계로 볼 때 몇몇 저급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숙기에 진입한 상태에 있으므로 아직은 전기, 전자산업과 더불어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 V. 결 론

한국의 섬유산업은 기능인력의 부족, 국내임금의 상승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의 거센 추격으로 세계시장에서 그 설 땅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경영의 필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시켜 국제적인 추세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블록화, WTO체제하의 개방화 등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므로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바람직한 해외직접투자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힌 대로 다각적인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지시장 개척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저임금을 이용한 투자목적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점차 후발개도국의 경제개발정책이 진전되면서 낮은 임금에 대한 이점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현상이나 목표시장의 환경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지역을 다양화하고 국제마케팅전략을 활성화하여 현지시장 개척을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해야 하겠다.

둘째로 전략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세계적인 조직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양적인 투자에서 이제는 양과 질을 겸비한 조직적이고도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투자를 효율화하고 향후 투자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망되며 경영 노하우(know-how)도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로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자율적인 현지화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직접투자시 국내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경영활동에 임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투자성과도 낮으며 마찰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기업을 국내기업의 부속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자율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인사관리의 현지화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지시장에 적합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해외에서 가공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감면제도의 시행이 요구된다. 최근의 섬유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보면 수출은 의류보다 사·직물이 높으며 수입은 원자재나 중간재보다 완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완제품 수입은 계속 증가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연평균 75-80%로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는 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현지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된 원·부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재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기업 제품의 역수입은 국내 원·부자재의 수출 증대에 이바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세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무역수지적자 폭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로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즉 심층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치, 통관과정에서의 절차간소화를 통한 기업간 거래의 원활화, 해외투자 정비 및 세제지원 확대, 선진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추진 등 투자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로 개별기업에 적합한 투자전략을 세워 알맞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아시아나 중남미에 편중되었다. 이로 인해 과당경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지역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대상국을 여러 각도에서 점검한 후 선정해야 하는데 투자환경설명회나 투자유치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각 개별기업에 맞는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일곱째로 자본재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자본재 수출은 국민경제 특히 국제수지면에서 흑자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이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더욱이 해외생산에 따른 자본재 수출은 향후 우리 자본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므로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자본재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결국 본 연구는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행태를 분석하고 있는데 장기적 측면에서 향후 투자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향후 연구과제로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일반화하기 위한 산업별, 국가별, 제품별 비교분석과 아울러 성과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박길상.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1.
- 섬유제품수출조합. 「섬유제품 수출현황」, 1997.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류 해외투자 실태조사 보고서」, 1997.
- \_\_\_\_\_. 「섬유류 해외투자 현황」, 1997.
- 한국은행. 「해외투자법인 현황」, 1997.
- Agrawal, R.G. "Third-World Joint Ventures: Indian Experience." K.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 Buckley, P.J.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Reading versus Japan?"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Dec. 1985.
- Chen, E.K.Y. "Hong Kong Multinationals in Asia: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K.Kumar

-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 Cory, P.F., and Dunning, J.H. "The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MNE Involvement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A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Indiana Univ., March 1981.
- Dunning, J.H.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1 a.
- \_\_\_\_\_. "Explaining Outward Direct Inve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Support of the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K.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b.
- \_\_\_\_\_. "Explaining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Countri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117 (1981 c).
- Dunning, J.H., and McQueen, M. "The Eclectic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International Hotel Industry." A.M.Rugman, ed.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Croom Helm, 1982.
- Giddy, I.H., and Young, S. "Conventional Theory and Unconventional Multinationals: Do New Form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Require New Theories?" A.M.Rugman, ed.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Croom Helm, 1982.
- Hufbauer, G. *Synthetic Materials and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 Kojima, K. *Direct Foreign Investment: A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Operations*. London: Croom Helm, 1978.
- Lecraw, D.J.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LDCs: Evidence from The ASEAN Region." K.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 \_\_\_\_\_. "Direct Investment by Firms from Less-Developed Countries." *Oxford Economic Papers*. 1977.
- Lee, C.H. "On Japanese Macroeconomic Theorie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uly. 1984.
- Nambudiri, C.N.S.; Lyanda, O.; and Akinnusi, D.M. "Third-World Country Firms in Nigeria." K.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 Ozawa, T. *Multinationals Japanese Style: The Political Economy Outward Dependen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Sekiguchi, S., and Krause, L.B.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SEAN by Japanese and the United States." R.Garmant, ed. *ASEAN in a Changing Pacific and World Economy*. Australian National Univ. Press, 1980.
- Ting, W.L., and Schive, C. "Direct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from Taiwan." K.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80 (1966).

\_\_\_\_\_, *Sovereignty at Bay: The Multinational Spread of U.S. Enterprises*. N.Y.: Basic Books, 1971.

\_\_\_\_\_, *Storm over the Multinational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Wells, Jr.L.T. "Foreign Investment from the Third World: The Experience of Chinese Firms from Hong Kong."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pring 1978).

\_\_\_\_\_, "Foreign Investors from the Third World." K.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_\_\_\_\_,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T.Agmon and C.P.Kindleberger, eds. *Multinationals from Small Countries*. Cambridge, MIT Press, 1977.

White, E. "The International Projection of Firms from Latin American Countries." K.Kumar and M.G.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Yoshihara, K. *Foreign Investment and Domestic Response: A Study of Singapore's Industrializations*. Singapore Eastern Univ. Press, 1976.

## A Study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Textile Enterprises

Kil-Sang Park\*

###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speed of internationalization of corporations under WTO system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considered as the important mea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avoiding trade barrier.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tud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corporations is of great importance. Many studies till now, however, are concerned with the macroscopic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corporations, not with the establishment of strategy appropriate to the environment of host country and the investment performance.

In order to meet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thesis aims at accomplishing the following three tasks.

- ① synthetic assessment of existing theor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② systematic adjustment of factors of environment i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ivities.
- ③ analysis of above factors i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textile industry and proper proposal of strategic model for the individual corpor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according to the aim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① To lead foreign direct investment successfully, variable and effective information-presentation should be offered with priority.
- ② The investment strategy through regional diversification is required.
- ③ The localization of decision making has to be attempted assertively.
- ④ The global network system is needed for more recommendable foreign direct investment.
- ⑤ More aggressive and outgoing attitude like developing into the local market and obtaining the high-technology is desperately needed.

---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SangJi University